

# “플라스틱 사용 50% 감축·재활용 100%”

### 제주도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 발표 2040년까지 1조813억 투입해 30개 세부과제 추진 다회용기 전환·광역 생활 자원 회수센터 운영 등

제주도가 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100% 재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큰 목표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각·매립되는 처분율은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계획 실현을 위해 1조813억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 원천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분야 탄소 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제주가 분석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47만 5692t으로, 이중 폐플라스틱이 15.1%(7만2029t)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처럼 플라스틱을 지속 생산·소비할 경우 도내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30년 10만9824t, 2040년 17만 8142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배출량인 6만6171t 대비 각각 1.7배, 2.7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도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감량 및 선순환 체계를 완성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4만5056t을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 예측되는 204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

생 전량치 대비 81%를 감축하는 수치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일회용품에서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하고, 택배 포장을 다회용 수송 포장재로 전환해 나간다. 소비자가 개인 용기로 포장 없이 제품만을 구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도 확대한다.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투명페트병을 섬유나 다시 투명페트병으로 재사용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1일 140t 처리 규모의 광역 생활 자원회수센터를 5월부터 시범 가동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 보건환경연구원·문화예술진흥원 종합감사 “소속 직원 건강검진 업무 철저히”

### 건강진단 미 실시 직원 유해인자 취급 부서 배치

코로나19 등 감염병 검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인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이 정작 직원들의 특수건강검진 제때 실시하지 않거나 건강진단 제때 실시하지 않거나 건강진단을 생략한 채 유해인자 취급 부서에 직원을 배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0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18년 6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10월 20-26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도 문화예술진흥원이 2019년 2월 이후 추진한 업무에 대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두 기관에 19건의 행정상 조치와 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4, 주의5)를 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채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부서에 직원을 배치하거나 배치 후 특수건강검진을 제때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소속 직원의 건강검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시 폭증하는 코로나 검사에 대응하느라 부득이 특수건강검진 업무를 신속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고성능 설비인 '대기물질 실시간 이동측정시스템'을 구입한 후 대기유해물질을 측정할 값만 관리하고 유의미한 연구·분석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도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전시실 대관 신청 경합 건을 심의하면서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운영위원을 제척시키지 않은 채 심의하도록 된 사실이 확인돼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강다혜기자

## 4·3왜곡 태영호 의원 국힘 최고위원직 사퇴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사설' 등 잇단 설화로 논란을 빚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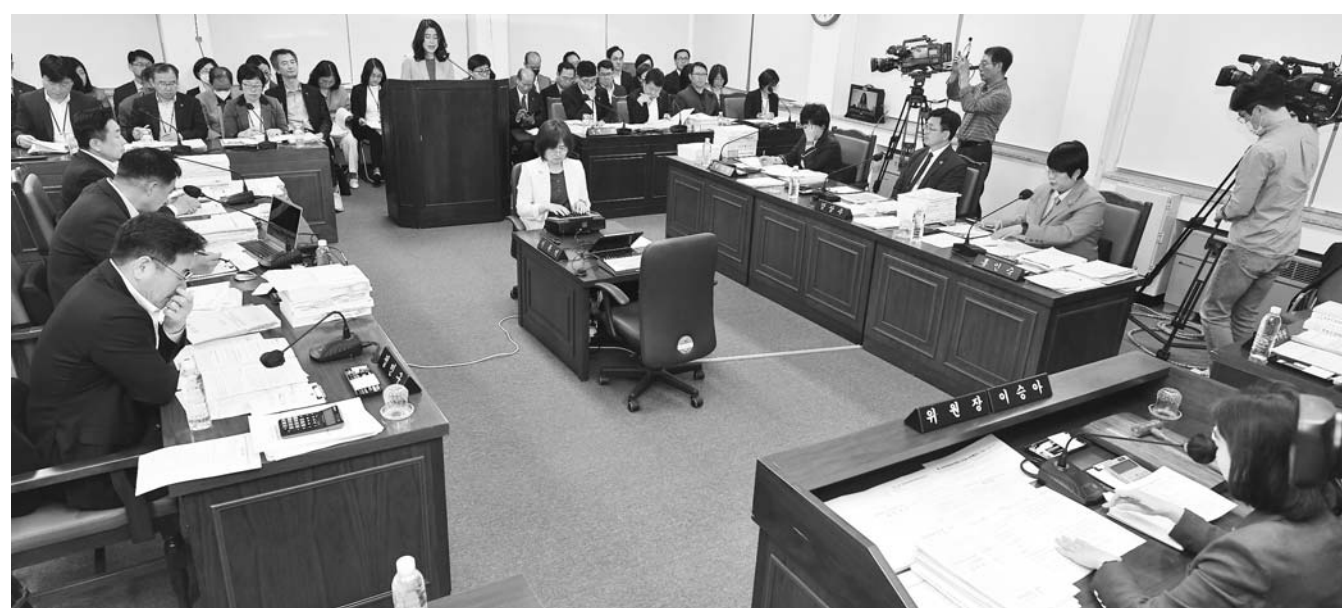
태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공식 표명했다.

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면서도 “그러나 제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고 했다.

이어 “오늘(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제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태 의원은 이날 제주 4·3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 '제주에 가서 사죄를 할 것이냐'는 물음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뒀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0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제주도의회 제6

## 도의회 예산심의의견 목살 '집중 포화'

### 제주도의회 문광위 임시회

#### 양경호 의원 “의결된 예산 보조금심의위서 삭감 위법”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10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지난해 올해 예산 심의 때 본 예산에서 의결된 예산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해서 삭감이나 감액이 돼서 이번 추경안에 올라왔다”며 “이렇게 삭감되거나 감액된 것이 7건으

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보조금심의위가 재심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2020년 당시 분명 잘못했다고 사과해놓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 브랜드 발굴 지원 사업과 관련 예산을 “너무 쉽게 편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윤기자

##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위 구성안 가결 6개 공항에 이어 전국으로 연대 확장 예정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전국의 공항소음피해 지역의 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항국 부의장(국민의힘, 용담동)은 지난 8일 충청북도 청남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의 공항소음피해지역 광역의원들은 이번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그간 공항소음에 대한 소극적인 정부정책과 개별공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항소음 정책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사무로 분류되어 실제

공항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는 철저히 논의와 대책에서 배제돼 시민들과 심각한 괴리감이 있어 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음피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고시 및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현재 공항소음대책공항으로 지정된 제주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뿐만 아니라 대구, 청주, 원주, 광주, 군산공항과 무안공항, 양양공항, 사천공항까지 확대해 공항소음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 진정한 제주출의 보약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핵심  
토양의 pH를 맞추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농가작업인부 지원**  
(과수원 발작업)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도움** **코코리** 검색

###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